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전쟁은 곧 종료, 이란의 항전 지속되고 IEA는 비축유 방출 결정

- 미국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포함.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여전
- G7, 러시아 제재 유지에 합의. ECB 인사들의 금리인상 관련 의견은 상이
- 일본, 17개 성장분야 선정하여 집중 투자 계획. 인도는 외국인 투자 규정 완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2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부합, 국제유가 불안 등이 영향

주가 하락[-0.1%], 달러화 강세[+0.4%],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이란 전쟁 발 에너지 공급 혼란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우려 등으로 상승
독일은 ECB 통화정책의 매파적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 등으로 10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78.3원(스왑포인트 감소 시 1479.6원, 0.89% 상승). 한국 CDS 강보합

		3/11일	3/10일	전일대비			3/11일	3/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75.8	6,781.5	-0.08%	국제 금리 10y	미국	4.23%	4.16%	+7bp
	유럽	602.54	606.12	-0.59%		독일	2.93%	2.84%	+10bp
	중국	4,133.4	4,123.1	+0.25%		영국	4.69%	4.55%	+13bp
	일본	55,025	54,248	+1.43%	CDS 5y	한국	27bp	27bp	+0bp
	한국	5,610.0	5,532.6	+1.40%		중국	47bp	45bp	+2bp
환율	달러지수	99.26	98.83	+0.43%	위험 지표	EMBI+	-	270	-
	유로화	1.1567	1.1611	-0.38%		VIX	24.23	24.93	-2.81%
	엔화	158.95	158.05	-0.57%		WTI유	87.25	83.45	+4.55%
	위안화	6.8741	6.8685	-0.08%	원자재	구리	584.6	590.4	-0.99%
	원화	1,466.5	1,469.3	+0.19%		금	5,176.5	5,192.0	-0.3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전쟁은 곧 종료. 이란의 항전 지속되고 IEA는 비축유 방출 결정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는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이에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발언. 아울러 자신이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고 강조. 또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함을 대부분 제거했기에 석유업체들이 이 해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가는 곧 내려갈 것이라고 참언
- 또한 트럼프는 이란의 미국 본토 공격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언급(연방수사국은 이란 드론의 미국 본토 공격을 경고).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 상황이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기까지 3~4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미국 중부사령부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란 민간 항구 공습을 예고
-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공급 개선을 위해 석유기업 Sable Offshore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
-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경고를 무시한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언론들은 피해 선박이 4척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보복 공격으로 미국은 유가를 제어할 수 없을 것이며, 유가가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제 거점과 은행을 공격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를 파괴할 장기 소모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
- 영국 가디언은 이란이 미국 측이 전달한 휴전 제안을 2차례 거부했으며, 미국이 보다 대규모의 정치 및 경제적 비용을 치르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공격 방지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보장뿐이라고 강조
- 세계에너지기구(IEA)의 32개 회원국은 사상 최대 규모인 4억배럴 이상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다만 이번 결정이 중동발 공급 차질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는 평가 등으로 국제유가는 상승(WTI 87.3달러 +4.6%)
-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번 對이란 군사작전의 경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고 발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보합.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여전

○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2.4%, 0.3%로 전월(각각 2.4%, 0.2%) 대비 보합 및 오름세 강화를 나타냈고, 근원 CPI의 경우 2.5%, 0.2%로 전월(각각 2.5%, 0.3%) 대비 보합 및 오름세 둔화를 시현. 이번 결과는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최근 이란 전쟁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지속

○ 한편, 2026 회계연도의 첫 5개월(25년 10월~26년 2월) 동안의 누적 재정적자가 1조 40억달러로 전년동기비 12% 감소. 이는 관세로 인한 세수 증가 등에 기인

■ 대체투자 운용사 Cliffwater, 대규모 사모대출펀드 환매 요청에 절반만 지급

○ 주력 사모펀드(자산규모 330억달러)의 1/4분기 환매 요청이 전체 지분의 14%였으나, 규정에 따라 최대 7%만 지급. 최근 사모대출 관련 불안으로 환매 요청이 급증

■ G7, 러시아 제재 유지에 합의. ECB 인사들의 금리인상 관련 의견은 상이

○ G7 정상은 온라인 회의를 갖고 유가 상승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 EU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발언

○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나겔 위원은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인 카지미르 위원도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며 이에 동조. 하지만,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드 갈로 위원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피력

■ 일본, 17개 성장분야 선정하여 집중 투자. 인도는 외국인 투자 규정 완화

○ 일본 정부는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반도체와 AI 등 17개 첨단 산업에서의 투자 전략 초안을 공개. 단순 보조금 지급 이외에 규제 개혁 등도 이번 초안에 포함

○ 한편 인도 정부는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중국 등 인접국들에 까다롭게 적용되던 외국인 투자 규정을 완화. 이번 조치는 중국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12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1월 주택착공 및 건설허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금융시장 내 이란 전쟁 조기 종식 낙관, 현실적 우려 요인을 과소평가 - 블룸버그

(Iran Can't Let Trump Have His TACO and Walk Away)

- 최근 금융자산의 가격은 이란 전쟁이 조기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 이는 '트럼프 TACO(트럼프는 언제나 한발 물러선다)' 베팅에 기인. 그러나 이란이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 이란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꾀하면서도 대외 체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
- 또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 가운데 주요 신흥국 경제도 하방 압력에 직면. 인도는 7.8% 수준의 성장 및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골디락스 기대보다는 자본유출 증가 압력에 직면. 중국은 소비 부진 및 유가 상승에 의한 수출 감소 우려가 제기. 이에 유가 변동성 지속 가능성, 신흥시장 충격 등을 고려할 필요

■ 연준 독립성 훼손, 미국의 재정위기 촉발할 소지 - 블룸버그

(A compromised Fed would risk a fiscal crisis)

-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미국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GDP의 6%에 달하고, GDP 대비 연방부채는 2차 대전 당시 정점을 상회. 이러한 부채 부담 증가는 트럼프가 연준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단기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 금리 하락 시 이자비용 감소, 성장 가속, 실질 부채 축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
- 그러나 자원의 한계로 성장 가속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고 AI 효과도 불확실. 물가 상승과 연준의 독립성 훼손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장기금리 상승을 유발. 시장은 이러한 재정 악화와 정치적 대응 부족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판단

■ 중국 경제, 이란 전쟁으로 양날의 검(디플레이션 해소 vs. 수출 감소)에 직면할 소지 - 블룸버그

(Iran War Poses Double Edged Risks for China's Reflation Efforts)

- 정부가 대규모 전략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당국의 디플레이션 해소 기대에 부응. 하지만, 소비자 수요 증가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高유가로 인한 기업 비용 상승과 마진 압박은 고용에 부담을 주어 중국 경제에 악영향 초래할 소지
- 반면,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세계 경제 및 무역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부정적 상황에 직면할 우려. 일부에서는 수출 수요가 5~10% 감소할 경우 중국은 연간 0.16~0.31%p의 GDP 감소를 겪게 될 수 있다고 추정(Bloomberg)

■ **세계 경제, 이란 전쟁과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득과 실은 상이 - WSJ**

(The Economic Winners and Losers of the Iran War)

- 고유가 장기화의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국가별 경제적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예상. 에너지 순수출국인 미국조차도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아 휘발유 등의 가격이 상승하며, 이는 운송·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도 초래. 또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소지
- 걸프만 지역 국가들은 대체로 유가 상승의 수혜가 크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수출 제한과 생산량 감축으로 경제적 손실도 예상. 아울러 중동 관광 산업 타격도 문제. 유럽의 경우 높은 수입 에너지 의존도 등으로 인플레이션 심화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경제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도 상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부족에 취약하여 연료가격 상한제·재택근무 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
- 중국은 막대한 전략비축유,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및 전기자동차 보급, 석탄 산업 보유 등을 감안하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 원유의 새로운 수요처 발굴과 강화 등으로 경제적 수혜 예상. 산유국인 중남미와 캐나다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제 성장 촉진할 전망

■ **이란 전쟁, 금융시장 ‘셀 아메리카’ 국면에서 미국 자산 선호 강화를 유도 - 블룸버그**

(The Iran War Just Shredded the ‘Sell America’ Trade)

■ **주요국의 비축유 방출, 이란 전쟁 發 원유 공급 충격 완전 해소에는 부족 - 블룸버그**

(Can Tapping Oil Reserves Tame the Iran War Price Shock?)

■ **유럽의 새로운 에너지 위기, 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 가속화 필요성 재부각 - WSJ**

(Europe’s New Energy Crisis Will Mean a Bull Market in Renewables)

■ **이란 전쟁의 경제적 파장, 에너지 회복력과 정책 대응 중요성 부각 - Financial Time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war with Iran)

■ **중동 發 아시아 증시 충격, 직접적인 기업 이익 영향 고려 시 과도한 편 - Financial Times**

(Oil fears hit Asian stocks harder than profits)

■ **이란, 민간인 피해로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의지는 약해질 가능성 - Financial Times**

(Iranians rethink the price of regime chan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